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 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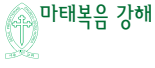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겨자씨와 누룩 비유

(마 13:31-33)

예수님께서서는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천국이 어떤 개념으로 우리에게 오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 겨자씨 비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31절)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볼펜으로 하얀 종이에 콧 찍은 점의 크기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매우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가 수백 만 배, 수천 만 배로 성장하는 것처럼 천국 또한 아주 작게 시작하여 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크나큰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조선 땅에 뿌려진 복음씨도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 이제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을 하였습니다

2. 누룩 비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33절).

겨자씨 비유가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면 누룩 비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의 인격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모두 천국의 생명력을 말한다면 교회의 성장은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이 모두 중요합니다.

① 인격의 변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인격적인 변화를 뚜렷하게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고, 세리 마태가 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 가운데 천국 누룩이 있느냐? 너희가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얼마나 내 놓을 수 있느냐?”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② 사회적인 변화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위력이 있어 개인뿐 아니라 한 국민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도록 원동력을 제공한 영국의 윌리엄 월버포스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 독립 운동을 주도한 분들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겨자씨와 누룩처럼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며 전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Parables of Mustard Seed and Yeast

(Matt 13:31-33)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Jesus told people the parables of mustard seed and yeast. These parables teach us about the Kingdom of heaven.

1. The parable of mustard seed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ustard seed”(v.31).

A mustard seed is the smallest seed of all seeds. It is just like a dot that can put on the piece of white paper. Like this, the Kingdom of heaven starts a very little. But just as the small mustard seed grows millions of times, and ten millions of times, so the kingdom starts a very little and later, comes to us the biggest God’s nation beyond imagination.

The Gospel seed that was sowed in Yi Dynasty in Korea was at first insignificant like a mustard seed. However, because there is vital power, the Korean Church in the history of Christianity has enormously revived, so much that we can’t trace all of it.

2. The parable of yeast

“The Kingdom of heaven is just like yeast that a woman took and mixed in a large bowl to make flour until it worked all through the dough”(v. 33).

If the parable of mustard seed visibly explains God’s nation, the parable of yeast invisibly means personal change and social change of individuals. If these two parables indicate the vital power of the Kingdom, the church needs the important quality and quantity of growth.

1) The personal change

We know that anyone who met Jesus in the Bible clearly showed the change of personality in their life; as Zacchaeus the tax collector, Matthew, and Peter. Even now Jesus challenges us.

“Is there yeast of the kingdom among you?” “Did you experience the change of personality?” “How much can you bring out the nine fruits of spirit?”

2) The social change

Because the Gospel has power just like dynamite, it changes not only individual but also the people of a nation. British philanthropist, William Wilberforce who gave power to abolish Negro Slavery was a faithful Christian. Likewise, most people who led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were Christians.

My beloved Christians,

Those who believe the Christ child who was born in a manger at Bethlehem experience the personal change like mustard seed and yeast, which are scattered around the world, grow God’s nation beautifully, and change the society.

By becoming like mustard seed and yeast, giving out the fragrance of Christ, and working for God’s nation,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be the sincere people of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13대 장로 · 14대 집사 · 13대 권사 선거

-오늘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오늘 찬양예배 후 제 13대 장로 10명을 선출하고, 당회에서 추천한 제 14대 집사후보 59명, 제 13대 권사후보 85명을 선출하는 공동의회를 가진다.

장로는 공동의회 투표인 수의 3분의 2의 찬성, 집사와 권사는 공동의회 투표인 수의 2분의 1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투표권은 1부 예배 후부터 찬양예배 전까지 2층

로비에서 교구 별로 선거인명부 대조 후 배부할 예정이다.

본 교회의 18세 이상 등록된 세례교인(세례, 입교, 개종)은 모두 공동의회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서 서울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협력하기 바란다.

「2014 흥해 작전」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 - 강사: 박노철 목사
6월 6일(금)~25일(수) 새벽 5:00~6:00

2014년 흥해작전 준비가 시작되었다. 주제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 (히11:16), 존 번연의 『천로역정』이다. 기간은 6월 6일(금) ~ 6월 25일(수)이며 새벽 5시부터 6시까지다.

흥해작전은 택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시고, 흥해를 열어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

신 우리 하나님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조국의 안전과 복음화, 서울교회와 한국교회의 부흥, 가정과 개인의 기도제목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흥해를 믿음으로 건너고자 하는 "말씀과 기도운동"이다.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하기 바란다.

제 45회 한국기독교학술원 학술공개세미나

5월 19일 (월) 오후 2시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통일을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입장"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이종운 목사)은 내일(19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한반도 자유, 정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입장을 주제로 45회 학술공개세미나를 갖는다.

최근 우리사회에 통일문제가 급격히 답문으로 부상하면서 한국기독교학술원은 이번 학술발표회를 통해 위의 주제를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비전으로 제시코자 한다.

학술원측은 위 주제를 성경적, 신학적, 정치적, 국제적, 사회적, 군사적 입장에서 바라보며 각각 이종운 목사, 김영한 목사, 류우익 박사, 이정훈 박사, 손봉호 목사, 박용욱 박사를 패널로 세운다. 학술원은 이번 학술회를 통해 통일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정리하여 공동기도 제목으로 삼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자 한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란다.

2014년도 상반기 서울성경대학 및 열린프로그램 수료

- **성경통독반(24명)** : 권민정2, 김명옥, 김성혜, 김민실, 김태욱, 남선영, 박경숙, 박현영, 박희실, 배은찬, 선혜영, 유미숙2, 윤정선, 이민경2, 이연규, 이인숙, 이자혁, 이주연, 이진리, 이현주14, 장영순, 최옥조, 한은경, 호미정
- **결혼예비학교(4명)** : 박재우, 신은경1, 안지훈, 진민선
- **전도학교(16명)** : 김미숙7, 김준진, 김선화3, 남경혜, 박성희3, 박미경5, 신혜숙, 송지훈, 송명심, 정영애, 이선자1, 이선희5, 최재민2, 정금희1, 정인숙, 전효신
- **교사양성반(14명)** : 김영애, 김준서, 소훈, 신도빈, 오진욱, 유영순3, 이남숙, 이민정1, 이영주, 이인표, 이정미6, 임대중, 정미경3, 최미진1
- **교구일꾼양성반(3명)** : 문수자, 심미옥, 윤종희
- **비블리오 바이블스쿨(25명)** : 강예교, 권예지, 김종혁, 김혜나, 노진철, 노진희, 박시은, 박인성, 배은찬, 설재울, 손예진, 송하영, 우정균, 윤자은, 이수아6, 이수아7, 이수우, 이에서, 이태민, 장우정, 조민성, 최지용, 한유정, 한유준, 황희성
- **선교대학(21명)** : 권소희, 김광신, 김형상, 남경혜, 문금희, 박미경5, 박옥, 박종권2, 송행희, 양명희, 오지열, 윤명규, 윤정민, 이승자1, 이영기, 이영숙4, 장석남, 주화인, 최광성, 최규조, 황광
- **살렘 경도대학(77명)** : 강서분, 공진문, 구연복, 국산옥, 김경자, 김경철, 김광식, 김금자1, 김길자, 김덕자, 김동주, 김만순, 김복순5, 김수복, 김연정, 김영철, 김정웅, 김창식, 김혜경, 김할란, 나순금, 박경희, 박동희, 박두영, 박봉근, 박성근, 박양임, 박정숙3, 박춘자, 박도채, 박혜숙, 백명자1, 백영숙, 소정부, 송옥혜, 신종진, 심상목, 안창휘, 양옥자, 여옥기, 오정환, 원명희, 유복달, 유순임, 윤만현, 이경희2, 이덕빈, 이부자, 이재순, 이춘자, 이준희2, 이홍숙, 인천희, 임정연

- 전배호, 전원순, 전인화, 전정목, 전행자, 전해원, 정병무, 정봉금, 정빈모, 정애신, 정희자, 조귀순, 조순옥, 조영복, 최무순, 최봉애, 최재안, 최정옥, 최숙희, 최창화, 최향복, 최화옥, 황성연
- **야고보서(26명)** : 강석조, 김상태, 김숙자1, 김순영, 김옥순, 김찬진, 김현경2, 박인규1, 박진주, 백승갑, 손용문, 송미령, 송행희, 송희경, 안인호, 이강진1, 이경희3, 이몽만, 이은자, 이종장, 유선희, 육순자, 윤미란, 은기장, 진교남, 최종희
- **어머니 힐링스쿨(37명)** : 송영미2, 김희선, 송미령, 강미숙, 장경혜, 오세정1, 김영옥1, 강정화, 이윤희2, 조정옥, 김현경2, 이명심, 유영순3, 최유순, 박길자, 한은영, 이태정, 송경민2, 이영민, 장민자, 이해정4, 최난경, 강희정, 김준옥, 조윤정2, 김성자1, 박순규, 최종희, 송행희, 김미영3, 윤계진, 백난희, 석준희, 최금숙, 한효숙, 김숙영2, 이영란3
- **영유아 어머니하트스쿨(22명)** : 김세연, 김영아, 김영현, 김현정, 남재은, 박선미, 박은진, 송지훈, 송혜원, 신아령, 양은희, 음수영, 음혜경, 이미자, 이지연, 이해진, 이화용, 계오복, 조동희, 조상희, 진현정, 차영림
- **예레미야(26명)** : 김명옥, 김순영, 김연희2, 김옥순, 김유정4, 김춘희, 박명애, 박분옥, 박종숙, 서양지, 서혜숙, 석상화, 송행희, 신선주1, 신은경1, 신은영2, 오혜경, 윤종희, 이경실, 이미화1, 이영자8, 이윤진1, 이해영1, 이홍숙, 장영순, 홍성혜
- **서울음악교실(29명)** : 고인진, 김상범, 김은선3, 김주만, 김지수12, 김홍기3, 김향옥, 박영신2, 박혜경1, 백선희, 백현주, 소훈, 손경화, 송명원, 양수미, 유승애, 이도경, 이승자1, 이진서, 이정미, 이종영, 이창호, 이태서, 이해경8, 장난희, 장미자1, 장태준, 정영교, 한경신

총 : 324 명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30)

(문 130) 욥기2:1-2에 의하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하늘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답) 욥2:2에서 바울은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활동영역은 지옥의 어두운 구렁이로 한정된 것이지만(벧후2:4) 천사장 미가엘과 다투기도 하고(유다9) 하나님과 대화도 하는 넓은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3:1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서있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보고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사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인간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계12:10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사탄을 쫓아내기까지는 사탄은 하늘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경우에 따라 한정된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욥1:6, 2:1, 38:7) 하늘 법정이 하늘에서 열릴 경우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어디까지 일까요? 고후12:2에 의하면 바울은 삼중천의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욥2장의 장면은 가장 높은, 가장 거룩한 곳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속되고 가증한 것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계21:27) 그러나 좀 낮은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탄은 초청 받지 않은 손님으로 거기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으나 분명한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도전하여 시험을 했으나 실패했고 그리스도에 의해 그의 운명은 마침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갖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에 의해 천년동안 결박당하고 무저갱에 던짐을 받아 인봉된 후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가두었다고 했습니다.(계20:2-3) 천년이 차매 사탄은 옥에서 놓여 땅의 사방으로 다니며 미혹하고 싸움을 벌이다가 끝 무렵에 그리스도께 대항하다가 하늘에서 내린 불로 타버리고 마귀는 유향못에 던져져 밤낮 괴로움을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계20:7-10)

(다음 주 계속)



마음에 든 돌을 내려 놓고

가정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사교육의 일반지인 대치동 엄마들이 믿음 가운데 새로이 결단한다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취지 아래 진행된 "고등부 엄마들과 함께 떠나는 7주간의 신앙성경 여행: 복음서의 엄마들과 여성들" 성경공부 모임(세. 바. 맘 - 세상을 바꾸는 엄마들)에서 강의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편집자 주)

천세중 목사(고등부 지도)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높은 천정에 공명되어 마치 하늘의 소리처럼 들리는 이른 새벽 예루살렘 성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성전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무리가 있습니다. 살기가 가득한 증오의 눈으로 성전 안의 사람들을 탐색하던 그들은 곧 대상을 발견합니다. 찌벽 찌벽... 거만한 발걸음을 옮겨 다가오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매일 읽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기관들.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여 율법의 거룩한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이른 새벽 성전에 들어온 이 종교적인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율법책도,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아닙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 있던 것은 한 가냘픈 생명을 처절하게 찢어 놓을 수 있는 피에 굶주린 이리의 이빨처럼 날카로운 짱돌입니다. 그들의 다른 손에는 벌거벗은 여인의 헝클어진 머리채가 쥐어져 있습니다. 공포와 수치심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불쌍한 젊은 여인의 위태로운 운명이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성전 한복판에

세웁니다. 극한 두려움에 몸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보이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긴 여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한 바리새인이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 이 여인은 우리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아 끌고 온 여인이요, 우리 조상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당신은 무엇이라고 하겠소?"

가냘픈 여인의 머리채를 잡고 이른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온 사람들, 증오의 표적은 사실 그 여인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그들의 율법적 심판의 목표였다면, 간음의 현장에서 쳐 죽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노린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가르치며, 자신들이 누리왔던 특권을 위협하는 나사렛에서 온 젊은 선생입니다. 그들이 애써 끌고 온 이 벌거벗은 여인은 예수님 앞에 놓는 "덧"입니다. "당신은 무엇이라 하겠소? 어서 당신의 생각을 밝히시오!!" 그 젊은 선생이 만약 그 여인을 놓아주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라고 공격할 것입니다. 만약 그 여인을 율법대로 죽이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친 그의 가르침이 거짓이었다고 정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듯이, 간음한 여인도, 눈에 거슬리는 젊은 선생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천히 앉으셔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십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

저 돌로 치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다시 앉아 땅에 쓰시던 것을 계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을 쓰고 계셨을까요? 헬라이어 필사본 가운데, 소문자 사본 700번을 비롯한 여러 사본은 "그들 각자의 죄들을 쓰셨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돌을 들고 온 사람들 각자의 죄들을 땅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의 목록을 쓰시는 것을 본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고, 들고 있던 돌을 떨어뜨립니다. 황급히 성전을 빠져 나갑니다. 여인에게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을 건네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죽이겠다고 돌을 손에 들고 온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고, 나를 치려고 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네! 주님. 모두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거라." "죄에서 놓여 자유하거라. 사람들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거라. 하나님의 존귀한 창조물로서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거라. 다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당당하게 살아 가거라."

오늘 주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마음속에 들고 온 돌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죄와 증오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생의 고민들도, 품속에 감춘 수치심과 두려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하늘의 자유가 우리의 품에 내려오게 됩니다.



전도자 무디처럼



최민혁 전도사 (초등부 지도)

초등부는 올해부터 무디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유래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D. L. 무디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을 때 일어난 일에 있습니다. 무디가 젊었을 때, 그는

더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자주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셨는데요. 올해 초 무디반까지 맡게 된 선생님은 더욱더 열심히 전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2월까지 무디반은 한 명도 모이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세달 쯤가 되면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간 무디반 선생님이 전도했던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10명 이상이 전도되었고, 현재는 7명 정도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 무엇이라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자원했지만, 주일학교 측에서는 무디에게 아이들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디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전도하여 반을 채웠는데, 나중에는 무디가 전도한 반 하나가 주일학교 전체보다 더 많이 모이는 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초등부도 이 점을 귀감 삼아, 올해부터 무디반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반은 기존의 반과 사뭇 다른 모습으로 운영 되는데 이 반의 가장 큰 특징은 무(無)학생반이라는 것입니다. 연초에 아이들을 한 명도 배정하지 않고, 전도해서 채우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치 교회를 개척하듯 반을 개척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일을 현재 무디반 선생님께 부탁드렸습니다. 무디반 선생님은 이전부

무디반이 기존반과 또 다른 특징은 교사의 아이들을 향한 철저한 헌신입니다. 무디반 선생님은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아이들에게 피자나 다른 간식 파티를 하기도 합니다. 이리다 보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친구를 따라 우리 교회에 다니겠다고 합니다. 올해 초 등부는 무디반을 통하여 20명의 학생 전도, 두 개 반 개척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 너희 눈을 들어 받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요 4:35)

수가성에서 열심히 전도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서울교회 초등부를 보시고, '이제는 추수하게 되었구나!'라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품위있는 크리스찬 - B.M.W.운동

B.M.W.운동을 느끼다



윤수엽 집사 (4교구)

예전에 잠깐 섬겼던 교회의 카페에서는 멋진 은발의 장로님들이 하얀 와이셔츠에 나비넥타이, 그 위에 앞치마를 입고 카페 봉사를 하셨다. 잠깐 주문 선택에 망설이면 그 예쁜 눈주름을 더 동그랗게 굴리시며 “권사님들이 만드신 유자차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권하시던 모습을 대했을 때 너무도 멋진 감동이었다.

주일에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섬김이었다. 그 교회는 항상 멋지고 훌륭한 이미지로 성도들에게 말하게 된다. 그런 감동을 주일 서울교회 예배시간 주차장에서 또다시 만났다. 매연과 소음이 진동하는 공간에 주차 봉사자들이 환한 미소와 세련된 매너로 성

도들을 반갑게 맞이하신다. 늦었을 때는 목사님 말씀 놓치게 될까 염려스러운 목소리가 내 뒤로 아름답게 울린다.

“주차는 저희가 잘 해 놓을게요. 어서 올라가세요.” 귀한 말씀과 예배시간의 소중함을 봉사자들의 섬김에서 깊이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열고 들어가기 어렵다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까지 헤아리게 된다. 예전과 다르게 늦은 시간에도 교회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장로님들과 그 외 다른 분들이 성도들을 위해 불편함을 참고 멀리 다른 곳에 주차를 하심으로 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애쓰시고 섬기는 분들 덕분에 우리는 “천국의 문” 앞까지 길을 잃지 않고 잘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장로회신학대학교 협력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

5월23일(금) 오전 10:30~13:00

서울교회는 소속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신학교인 장로회신학대학교를 방문하여 미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갈 신학생들과 함께 [협력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 예배는 우리 교회가 주관하며, 박노철 담임 목사의 설교, 오정수 장로의 기도, 노문환 장로의 성경봉독,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등 순서를 담당한다. 예배 후에는 전 교직원/학생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격려의 시간을 갖는다.

- 일시: 2014년 5월 23일(금) 오전 10:30~13:00
- 장소: 장로회신학대학교
- 교회출발 : 오전 9:50

등정

■ 이중윤 원로목사는 19일(월) 한국기독교학술원 제45회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20일(화) 새로운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군선교후원회 특별위원회 소집한다. 22일(목) 한국장로교육원특강 및 강장애배설교를 한다. 24일(토) 한국개혁신학회 회례예배설교를 한다.

- 공연 : 15교구 신묘란 집사 4인4색 콘서트 5월 23일(금) 성남 아트센터 오후7:30
- 특담 : 3교구 김지훈5 성도 전선경 성도 가정 (김해수 집사 윤운 권사 자녀 가정)
- 주일식당봉사 : 이삭신교회 도르가전도회(5.18) 빌립신교회 리브가전도회(5.25)
- 금주의 식사 : 무명 성도(범사에 감사하며)

엄마, 아바 사랑해요!

지난 주 교육1국의 아버지주일 특별찬양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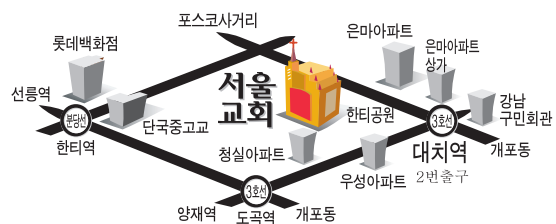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선출된 향존직 일꾼들이 훈련 기간을 잘 소화에 더욱 든든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2.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며 주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3. 파송 받은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도모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 일 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배	젊은이 예배	오전 1시 30분
	I 부 예배	오전 11시
새 벽 예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도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